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나눔 실천

- 전주 남부시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구매 -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 실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목),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하였다.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남부시장 내 청년몰을 찾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설 성수품(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품목) 역대 최대 공급('23년 20.8 → '24년 25.7만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배이상 확대 등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 차관은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 상담·지도(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24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교육) 교육활동비 신설(연간 40~60만원), 대학생멘토링 확대(4천→8천명)
(취업)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신설(자녀: 200명, 부모: 1,500명)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	책임자	과 장 하태원 (044-215-5480)
		담당자	사무관 문성희 (sh22moon@korea.kr)